

이란, 이동통신 및 정보통신 산업 동향

2004년까지 이동통신 400만 회선 증설 계획

이란 정부는 11월 27일 이동통신 장비공급 후보기업으로 Ericsson, Nokia, Siemens 등 3개 통신장비 제조업체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란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이동통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까지 이동통신 회선수를 400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란 정부는 120만 개의 신규 이동통신 회선을 증설하는 7,600만 달러 상당의 이 이동통신 프로젝트를 입찰에 부친 것이다. 이란은 현재 이동전화 200만 회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처음으로 입찰에 부쳐진 장비 공급자 선정 작업은 이란국영통신 회사(Telecommunication Company of Iran : TCI)가 주관하고 있다. TCI가 입찰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나치게 많은 회선 수가 제시된 것을 조정하게 되어 입찰진행이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었다. 입찰이 시작된 후, 130만 명의 고객이 이동전화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란에서의 이동전화 수요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란의 신임 정보통신 장관(Ahmad Motamedi)도 제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끝나는 2005년까지 이동통신가입자 1,000만 명 확보, 유선전화 2,000만 회선 구축, 인터넷 이용자 1,500만 명 확보 등의 야심찬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인구 100명 당 2.67명으로 저조한 수준

현재 이란에서의 이동전화 이용은 인구 100명 당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2.67명으로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7년 동안 이동전화 가입자수 증가율이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3번째로 높게 나타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동전화 사용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이란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란 국내에 공장을 보유토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란에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프랑스 기업인 Sagem이 지난해 이란에 단말기 조

립공장을 설립하였다. 또한, 2000년 4월에는 TCI가 Ericsson을 이동전화망 확장사업의 통신장비 공급업체로 선정하였다.

최근에 이란에서 이동통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통신장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전화선을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으로 유선 전화망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어 인터넷 전용선의 확충이 시급하다.

* 이란의 정보통신 산업은 1930년대의 근대화 과정과 1960년대 Mohammad Reza Shah가 추진한 경제개혁 정책을 통해 발전하였다. 주로 다국적 통신회사의 도움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1970년대 말 비로소 전신, 전화, TV가 상용화되었다. 1970년대 말 이란 국영 라디오/TV 방송국도 전체 인구의 60%에만 미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1984년에 이란의 TV 수상기는 총 210만 대 수준이었다. 1980년대에는 이란의 테헤란, 터키의 앙카라, 파키스탄의 카라치를 연결하는 국제통신망이 개설되어 국제전화 서비스가 한층 개선되었으나, 1986년에 이라크의 미사일 공격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최근 외국계 통신회사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인터넷 사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향후 이란의 정보통신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산업의 민영화 등 주장 대두

최근의 이란 통신시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독점 운영하는 국영기업인 TCI에 대한 민영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TCI는 향후 이란의 통신산업 개발사업에서 TCI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진행중인 이동통신 산업의 구조개혁은 TCI 민영화와 경쟁원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랫동안 이란에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해 온 테헤란 소재 Faran Telecommunications Company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말까지 인터넷 사용인구 120만 명에 이를 전망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6,454만 명의 이란인 중 40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 6개월마다 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2003년 말에는 이용자수가 12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란은 인터넷 사용인구의 절반 이상이 17세 이하인데, 주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국제전화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어 TCI의 국제전화 요금수입이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중동지역의 국가별 통신시장 현황(2001년말 현재)

국 가 명	인구 (백만명)	유선전화선수 (천개)	이동전화 ^{주1)} 가입자수(천명)		이동전화 ^{주2)} 가입자수 증가율(%)	인터넷 이용자수(천명)
바레인	0.70	173	299	42.49	48.8	140
이집트	64.55	6,650	2,793	4.33	169.0	600
이 란	64.54	10,346	1,725	2.67	118.4	402
요르단	5.18	660	745	14.39	97.9	212
쿠웨이트	1.97	472	489	24.82	26.8	200
리비아	5.58	610	50	0.90	n/a	20
오 만	2.62	235	324	12.37	85.2	120
카타르	0.61	167	178	29.31	46.0	40
사우디아라비아	22.32	3,232	2,528	11.33	132.5	300
시리아	16.61	1,807	200	1.20	n/a	60
UAE	2.65	1,052	1,909	71.97	56.7	900
예 멘	19.11	423	152	0.80	62.5	17
전세계	6,079.13	1,046,087	946,297	15.57	47.8	500,074

주1) 이동전화 가입자수의 이대릭체 부분은 인구 100명 당 가입자수

주2) 이동전화 가입자수 증가율은 1995~2001년까지의 수치임

자료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전문연구원 황수영(☎3779-6655)
E-Mail : sooyhwang@koreaexim.go.kr